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마 9:36-38

A. 서론 - 이 시대의 필요는 무엇인가?

1. 굶주림의 문제

- a.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괴로움 중 하나
- b. 대한민국 역시 한 때 보릿고개라는 어려운 시절을 겪었음
보릿고개 - 지난 가을에 추수한 곡식은 다 소비하고, 새로 심은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아 먹을 것이 부족한 봄에서 초여름 사이의 기간. 춘궁기
- c. 우리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 덕분에 이런 굶주림의 문제는 어느 정도 극복함
- d. 오늘날 세계 인구 중 약 10 억은 매일 굶주린 채 잠자리에 들어감
5초에 한 명의 어린이가 굶어 죽고 있음

2. 보다 심각한 영적 굶주림의 문제

- a.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밥을 먹지 못해 굶주리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
- b.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채 평생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됨
- c. (암 8:11)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3. 이 시대의 진정한 필요는 무엇인가?

- a.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가난, 굶주림, 불평등, 질병, 전쟁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
- b.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 불신자들: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 어린 그리스도인들: 구원은 받았으나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여 굶주린 상태
- c.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일꾼이 부족하다는 현실
- d. 이 시대의 필요 -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일꾼

B. 예수님의 사역

1.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심(마 4:17)

- a.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 b.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왕국을 세우러 왔으니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여라

2.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행하심

- a. 마 4:23-25 온갖 질병을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심
- b. 마 5-7 장 산상 설교 - 왕국 백성의 생활 규범에 대해서 가르치심
- c. 마 8 장 나병 환자, 베드로의 장모, 마귀 들린 자를 고치고, 바람과 바다도 제어하심

- d. 마 9 장 마비 병 환자를 일으키고,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시고, 치리자의 딸을 살리심. 눈 먼 자에게 시력을 주시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심

(* 이제 읽은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C.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

1.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태
 - a. 양은 스스로 먹을 것을 찾지 못함
 - b.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함
 - c. 양은 스스로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
 - d. 양은 스스로 맹수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없음
 - e. 목자가 없으면 양은 지쳐서 쓰러지고, 길 잃고 헤맬 수밖에 없음
2.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지도자
 - a. 사두개인 - 성전 예배를 강조. 성전에서 장사꾼과 결탁하여 이익을 챙김. 성직 매매 부패한 그리스 로마 문화를 수용하고, 현실에서의 부와 안락을 추구함
하나님의 기적, 천사, 영의 존재, 부활 등을 믿지 않음
→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목회자, 예배당, 교인 수, 헌금 액수를 강조하는 변영신학
 - b. 바리새인 - 성전과 제사장 제도의 타락을 비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침
겉으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나 율법의 본질과 정신을 알지 못하는 형식주의자
겉만 가꾸고 꾸미는 위선자들,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추구하는 자들
→ 사람들이 만든 각종 종교의식과 제도를 충실히 지키고자 하는 목회자
(새벽기도회, 일천 번제, 영성 훈련, 두 날개, 알파코스, 신사도 운동 등)
 - c. 옛세네파 - 속세를 떠나 광야에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 은둔 생활을 함
성경도 연구하고, 경건생활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주지 못함
→ 현실도피주의자. 기도원 운동, 영성 훈련(훈련으로 영성을 쌓지 못함)
 - d. 이스라엘에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옛세네파 사람들이 있었으나, 그들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함
3. 한국 교회의 현실: 오늘날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해마다 수천 명의 목회자들이 배출되고 있지만,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못함 - 예수님 당시와 비슷함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다”

D. 예수님의 해결책

1.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라
복음 전도와 교회 교육은 주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며 일하신다.
2. 수확하는 밭에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라. - 지치고 방황하는 양들을 위한 해결책
3. 마 10 장 예수님께서서는 열두 제자를 불러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셨다.

E. 우리의 책임

1. “무리들을 보시고”(36 절)
 - a. 미국을 여행하며 그 넓은 땅을 보며, 사람들의 상태를 보며, 한인 교회를 보며 실감함
 - b. 언론에 보도되는 한국 기독교와 교인들의 상태를 살펴보라.
 - c. 우리나라 지도를 펼쳐놓고, 말씀대로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어디에 몇 군데나 있는지 세어보라.
 - d. 지금이 어떤 때이며,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분별해야 한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2.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 a.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상태와 그들이 죽은 후 가게 될 지옥을 생각해 보라.
 - b.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 종교 놀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겨야 한다.
 - c. 예수님처럼 그들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 d.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3. 하나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
 - a.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교사, 전도자를 보내 주시도록
 - b. 교회 학교와 우리 교회의 신학원을 통해 성도들이 무장되고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4.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 a.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대로 기도했고, 그들은 일꾼이 되었다(마 10 장).
 - b. 자신의 직장을 버리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를 하라는 뜻이 아님.
누구나 자신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바른 성경 말씀을 소개할 수 있음
 - c. 딤후 2:15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나려면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
주일오후 성경 특강, 기초 성경공부반, 청년성경공부, 목요자매모임, 금요모임의 성경 강론, 교회에서 운영하는 신학원 등 많은 기회가 열려 있다.
부지런히 참석하여 우리가 먼저 성경을 배우고 일꾼으로 무장되어야 한다.
5. 결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라고 기도하고, 추수하는 일꾼이 되자.